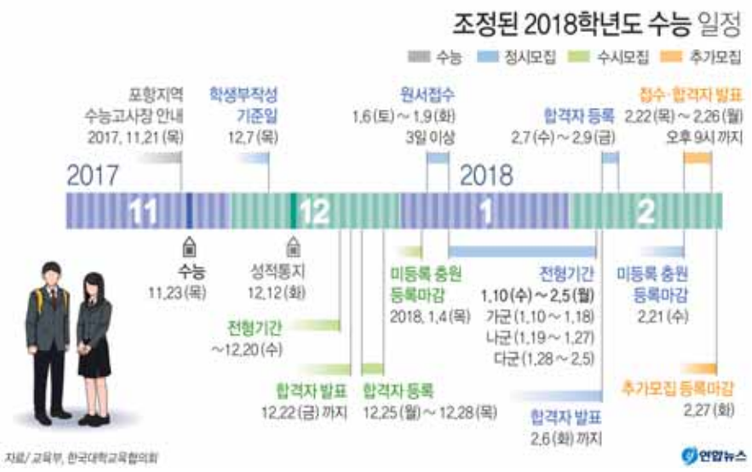
수능 기존 시험장서 그대로…85개교 전기·가스 등 안전 점검

광주시교육청·전남도교육청, 2018 수능 연기 후속 대책 마련

감독관 배치 계획 다시 조정 … 교실 변경 여부는 아직 결정 못해

고교 1·2학년 학력평가도 연기



광주·전남 수험생들은 일주일 연기된 수능 당일 기존에 지정된 시험장에서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될 전망이다. 또 오는 22일 치러지는 고교 1·2학년 대상 전국연합학력평가도 일주일 연기된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16일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에 따른 후속 대책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수능 연기에 따른 후속 대책 등이 담긴 서한문과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했다. 시교육청은 서한문을 통해 "수험생들이 흔들림 없이 임할 수 있도록 수능 연기와 관련된 안내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며 "수능시험의 공정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장 학교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해 한 치의 오차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별도의 서한문을 보내지 않았다.

이들 교육청은 수능 시험장 준비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험장으로 지정된 시(38개)·도(47개) 85개교에 대해서는 전기·가스 안전을 확인하고 듣기평가 시설도 재점검하는 등 매뉴얼에 따라 다시 준비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또 수능 감독관 배치 계획을 다시 짜고 시험장 준비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물품 등도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새로 구비할 예정이다. 다만 부정행위 방지 등을 위해 교실 변경 여부는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능문답지 보관 장소에 대한 경비도 강화한다. 현재 광주·전남 수능문답지 보관 장소는 모두 8곳(광주 1곳·전남 7곳)인데, 광주는 수능문답지 보관 장소에 대한 경비 인력을 6명→8명, 전남은 4명→5명으로 각각 2명·1명씩 증원한다.

전남은 또 불시특별점검반을 편성, 수능보관 장소에 설치된 CCTV 작동과 순찰 감시, 주변 위험시설 여부 등에 대해 불시 점검에 나선다. 또 도서지역이 많은 지리적 특성을 감안, 유관기관과 협조해 수험생들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은 오는 22일 치를 예정이던 고교 1·2학년 대상 전국연합학력평가도 오는 29일로 일주일 연기했다. 이 밖에도 시교육청은 다음달 13일 실시할 예정이던 수능실채점 학부모 설명회 일정을 일주일 미뤘으며 정시 집중상담일정도 다음달 21일~27일까지로 변경했다.

또한 고3 수험생들이 연기된 수능 기간 동안 학습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EBS 수능파이널 교재'를 제공하는 한편 인터넷 강의 및 무료교재 활용방법도 안내할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면서 이후 모든 일정이 일주일 연기됐다고 보면 된다"면서 "수험생들의 맞춤형 마무리 공부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16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광주시교육청 수능문답지 보관소에서 경찰관들이 경비를 서고 있다. 이날 시교육청은 경비인력을 6명에서 8명으로 2명 증원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경찰, 수능 문제지 보관소 '철통 경계'

하루 4명씩 배치·순찰 활동

수능 연기로 전국으로 이미 배부된 수능 문제지를 일주일간 보관하는 일에 비상이 걸렸다.

경찰은 광주 1곳, 전남 7곳 등 전국 85개 보관소마다 2교대로 하루에 경찰관 4명씩을 배치, 교육청 관계자와 합동으로 경비하기로 했다. 문제지 유출시도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와 형사 등 인력은 긴급 출동태세를 유지한다. 보관소 관할 지구대·파출소는 2시간마다 1차례 보관소 주변을 순찰하며 의심스러운 동향이 있는지 살필 예정이다.

수험생뿐 아니라 출제위원 700여명도 일주일간 추가 감금생활을 하게 됐다. 지난달 13일 합숙에 들어간 위원들은 이후 외부와 일체의 접촉이 금지된 채 수능 문제를 내왔다. 출제위원들뿐 아니라 이들을 돕는 지원·보안요원들도 연기된 수능이 끝날 때까지 합숙장소에서 나올 수 없게 됐다.

수능 체제 이후에는 문제지가 유출되거나 도난된 적은 없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문제가 학원강사에게 유출된 적 있었고 2010년에는 한 검정고시생이 경기도 성남시 인쇄공장에서 수능 문제를 훔치려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덤으로 얻은 일주일 … 아쉬웠던 부분에 투자를"

광주 진학담당 교사들의 조언

과욕은 금물 … 평정심 유지를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시험 전날인 15일 전격 연기됨에 따라 수험생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지역 진학담당 교사들은 무리하게 욕심 내지 말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우선 수능 연기로 남은 일주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광주 숭덕고 장광재 교사는 "당장 평소 정상적 학습상태로 복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학교·학원 등 기존 공부했던 장소로 빨리 복귀해야 한다"며 "시험 직전까지 가장 아쉬웠던 부분에 집중 투자하라"고 안내했다.

광주 광덕고 신희돈 교사는 "현재는 입력하는 단계가 아니라 출력하는 단계다. 국어나 영어영역은 글감 자료가 많은데, 천천히 읽어보면서 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탐구나 수학영역은 자신이 약했던 부분이나 부족했던 문항들을 꾸준히 되풀이하는 반복 학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연기된 일주일 동안 수험생들은 막바지 교과정리나 컨디션 관리에서도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대동고 정성근 교사는 "수능이 연기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수능 일주일 전이라고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한다"며 "당장 일주일 공부 계획표를 짜서 실전연습 위주로 실천해 나가면 안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애초 이번 수능 직후 예정됐던 주요 대학들의 논술·면접시험도 수능 이후로 연기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도 가중될 전망이다.

광주대성학원 이용희 논술장은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주요 대학 수시일정을 확인했는데, 모두 일주일씩 연기됐다"며 "논술 부분도 일주일씩 밀렸다. 좀 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이 좀 더 준비하면서 논술을 대비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공정성 문제 생기지 않게 일정 조정

수험생·학부모 혼란 최소화 하겠다

정명채 대교협 입학지원실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에 따라 16일 예정이었던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 등 대입 전형일정을 모두 일주일 미룬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1개 대학이라도 일정 연기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교육부가 각 학교에 협조 요청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정명채 대교협 대학입학지원실장과의 일문일답.

-당장 오늘 수시모집 1단계 또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인 대학이 있다. 이 또한 연기되나.

▲지금이나 내일 발표하면 다른 대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든 일정을 한 주 지연시키는 게 공정성 측면에서 적합하다. 1개 대학이라도 (변경된 일정에) 맞추지 않으면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므로 물리적으로 모든 것을 일주일 미룬다고 생각하면 된다.

-반발하는 대학은 없나.

▲행정·재정적 어려움을 밝힌 대학들이 있기는 했지만 수험생·학부모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다.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부가 행정명령 검토를 포함해 각 대학에 강력하게 협조 요청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다.

-4년제 대학 추가모집 일정이 단축돼 혼란스러운 부분은 없나.

▲추가모집 기간이 8일에서 5일로 사흘 줄었지만 당초 이 기간에 두 번 포함됐던 일요일이 한 번으로 줄어 크게 문제 없다. 4년제 대학이 2월 27일에 입시 마감하고 전문대는 이튿날인 28일에 전형 마감해 하루 정도 차이를 두기로 했다.

-전형일정 변경에 따른 대학의 재정적 손실과 연계해 입학전형료·입학금 문제도 논의됐나.

▲ 전형료도 내렸는데 이렇게 전형일정까지 바꾸면 1억원 이상이 들어간다는 우려 등이 나왔다. 하지만 당장은 수험생 혼란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전형료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연합뉴스